

닉네임¹의 언어특징에 대하여

강용택*

1. 머리말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의 보급이 날로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은 벌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와도 같이 인간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얻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가지 일들을 한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편리를 자유자재로 향유하면서 채팅을 매개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채팅을 하자면 먼저 인터넷에서 이름을 등록해야 하는데 인터넷 선상의 이름을 일명 닉네임(Nickname)이라고도 한다. 닉네임은 사용자의 이름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는 수의성을 띠면서 가상공간에서만 사용되는 기호일 뿐이다.

현실생활에서의 이름은 사회문화적인 관습, 종교, 민속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닉네임은 가족, 성별, 연령, 특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취미, 도덕수준, 심리적 특징 등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의성을 띤다.

이름은 부모나 윗세대들의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닉네임은 사용자의 문화적 수양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은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부모나 윗세대들이 작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윗세대들의 인생관, 가치관 등 사상이념을 반영한다. 그러나 닉네임은 사용자 당시의 심리적 감수에 따라 명명하기 때문에 시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닉네임도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때문에 닉네임은 사용자의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복잡한 인격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름은 단어의 개념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면 닉네임은 단어의 형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김철수”, “박영희”와 같은 이름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개념적인 의미만 나타내지만 “사랑은눈물타고”, “당신의향기”와 같은 닉네임은 형상적 의미를 나타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름에는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의 구별이 있지만 닉네임은 성별, 연령 구별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보면 성별을 판단할 수 있고 출생 연대를 대충 짐작

* 중앙민족대학교

¹ 본 논문에서는 중국조선족들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주요 연구자료로 삼는다. www.ybchat.com 이라는 연변채팅방 사이트에 가면 채팅방이 연령 별로 나뉘어져 있고 네티즌 거의 대부분이 중국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가상공간에서 네티즌들의 민족 구분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대화내용과 언어표현을 본다면 한국인이나 한족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름은 성별, 연령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경우 남자들의 이름에는 범, 용, 산봉우리, 별, 바다 등과 같은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여자들의 이름에는 꽃, 무지개, 구슬, 선녀, 난초, 향기, 아름다움 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김철수”는 남자를 가리키고 “박영희”는 여자를 가리키지만 “사랑은눈물타고”, “당신의향기”와 닉네임은 성별과 연령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름은 시대의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명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닉네임의 언어특징에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을 아니다. 대표적인 논문은 《社会语言学视角的网名探析》(朱蓓蓓 외, 2009)와 《网名的语言学分析与规范化问题》(高秀娟, 2008)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닉네임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닉네임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두 번째 논문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의 닉네임을 조사, 분석하고 닉네임의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조선족이 사용하는 닉네임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ww.ybchat.com 이라고 하는 연변채팅방에서 2,30 대 남자와 여자 네티즌들의 닉네임 400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닉네임의 구조적 특징, 내용적 특징, 수사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닉네임의 구조적 특징

닉네임은 한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로마자, 숫자, 부호 등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또한 닉네임은 사용자가 등록을 할 때 이름이 중복만 되지 않으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단어결합으로 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문장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닉네임은 가상공간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현실생활의 이름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닉네임의 구조적 특징은 부호조합형식과 구성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닉네임의 부호조합형식은 닉네임의 어종 별 구성형식이고 닉네임의 구성방식은 닉네임의 언어단위 별 구성형식이다.

닉네임의 부호조합형식(표 1)

부 호 비 율	한국어	혼종어 ²	숫자	로마자	한자	합계
개수	297	91	4	3	5	400
백분율(%)	74.2	22.8	1	0.7	1.3	100

² 여기서 말하는 혼종어는 한국어와 숫자의 조합, 한국어와 한자의 조합, 한국어와 로마자의 조합, 한국어와 부호의 조합, 숫자와 로마자의 조합, 로마자와 부호의 조합 등등의 조합형식을 말한다.

표 1 을 보면 74%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순 한국어로 되어 있고 23%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혼종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국조선족 네티즌들이 중국조선어로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성홍기휘날리며”와 같은 닉네임은 한국의 영화 “태극기는 휘날리며”의 영향을 받아 지은 것으로서 중국조선어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친아이더”, “!!쓰쓰삐”, “괴이난류유쎬”, “싼룬처사기³⁾”와 같은 닉네임은 언어접촉으로 인한 한어의 영향을 받은 중국조선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나뚜아때느매짚다”, “위대한뻬새⁴⁾”와 같은 닉네임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하는 함경도 방언의 언어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혼종어의 구성형식을 보면 “☎사랑♥나눔☎”, “고독男心”, “내사랑love(청도)”, “솔직한19 70”와 같이 한국어와 부호, 한자, 로마자, 숫자 등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Løπēчoπ”, “ljz9876”, “518@”와 같이 로마자와 숫자, 숫자와 부호로 구성된 것들이 있다. 한국어가 들어간 혼종어는 그나마 뜻을 짐작할 수 있으나 로마자와 숫자, 숫자와 부호로 구성된 닉네임은 사용자만이 뜻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용자의 복잡한 인격특성과 심리 변화를 반영하는 닉네임의 특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닉네임의 구성방식(표 2)

언어단위 비율	단 어	단어결합	문 장	기 타 ⁵⁾	합 계
개수	82	203	64	51	400
백분율(%)	20.5	50.8	16	12.7	100

표 2 를 보면 67%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단어결합의 방식이나 문장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20.5%를 차지하는 닉네임이 단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과 달리 작명에는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나 한족의 경우 이름은 대부분 3 음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닉네임은 인터넷에서 이름 중복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절, 단어, 단어결합, 문장, 기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닉네임은 가족, 성별, 연령, 특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취미, 도덕수준, 심리적 특징 등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성을 띤다.

중국조선족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보면 20.5%가 단어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대부분은 인명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닉네임도 네티즌을 대표하는 이름인 만큼 전통적인 작명원리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닉네임에 신선하고 생동하고 형상적이며 반항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어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한다. 그러다 보면 단

³⁾ “친아이더”는 한어 “亲爱的”, “쓰쓰삐”는 “441”(카드놀이 중의 일종), “괴이난류유쎬”는 구멍난 “旅游鞋”, “싼룬처사기”는 “三轮车司机”를 뜻하는 말이다.

⁴⁾ “나뚜아때느매짚다”는 《나도 어렸을 때는 멋있었다》의 뜻으로, “뻬새”는 “물만두”의 뜻으로 쓰인다.

⁵⁾ 여기서 기타는 한국어 음절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호, 로마자, 숫자들의 조합형식을 말한다.

어 형식으로는 사용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표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단어결합이나 문장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나무사이흐르는 봄”, “하늘끝에서 내린눈물”, “내용답사기쳐간곰”, “술과는귀”, “흔드는장미”, “적정한마음”과 같은 단어결합이나 “지는노을아름다워”, “눈같은너늑을가걱정”, “30 대아줌마좋아”와 같은 문장형식의 닉네임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나무사이흐르는봄”, “하늘끝에서내린눈물”, “지는노을아름다워”, “눈같은너늑을가걱정”과 같은 단어결합이나 문장 형식은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내용답사기쳐간곰, 술과는귀”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흔드는장미”, “적정한마음”, “30 대아줌마좋아”와 같은 단어결합이나 문장 형식은 선정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내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3. 닉네임의 내용적 특징

닉네임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아이디어자 네티즌들의 통행증이며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표식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너나없이 닉네임의 작명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닉네임은 개성이 있어야 하는 개성화 원칙과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야 하는 현저성 원칙이 있다. 개성은 네티즌 자신의 내적 감수이기 때문에 닉네임을 통하여 개인의 추구나 취향을 자유자재로 표현한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네티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가상공간이란 특수성 때문에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자면 오직 독특하고, 기발하고, 눈의 띄는 닉네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개성화 원칙이나 현저성 원칙과 관련 없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 닉네임을 짓기도 한다.

상술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닉네임의 내용적 특징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3.1 동물과 관련된 닉네임

동물과 관련된 닉네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천사의탈을쓴 토끼님”, “뽕치린먹는올챙이”, “♥예쁜여우♥”, “금돼지”, “예쁜고양이”, “꽃돼지”, “강아지”, “구미호”와 같이 온순하고 예쁘고 간사한 작은 동물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꽃뱀잠은호랑이”, “내용답사기쳐간곰”, “맘착한곰아저씨”, “못생긴곰”, “공포킹콩”과 같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며 우둔한 동물들이 쓰이고 있다.

3.2 자연과 관련된 닉네임

이 부류 네티즌들은 자연의 산천초목에 관심을 두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몸을 담고 싶어 하는 염원을 반영하기도 한다. “풀냄새좋아”, “초원”, “하얀이슬”, “눈꽃호호호”, “설련화”, “♥바다”와 같은 닉네임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를 떠나 공기가 맑고 깨끗한 자연을 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다.

3.3 지방과 관련된 닉네임

사람이 성장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많지만 흔히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는다. “연변(30대)”, “연길멋쟁이총각”, “바다의왕자(북경)”, “왕청도박째다”, “심천비둘기”, “흑룡강~남자”, “발해 40대”, “외로운남자청도”, “청도노산”, “도문강”, “훈춘에있는남자”, “청도 30세남”, “백두산의아들”과 같은 닉네임들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재 거처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표현하고 있다.

3.4 연예인과 관련된 닉네임

네티즌들은 어떤 사물의 특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이나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연예인의 이름이나 영화제목, 노래제목으로 닉네임을 짓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의 이름을 본 딴 경우는 “장동건”, “원빈”, “비”, “류시원”, “강동원”, “전지현”, “송혜교”, “김하늘”, “송윤아” 등이 있고 영화제목으로 지은 경우는 “미안하다v사랑한다”, “오성홍기휘날리며”가 있으며 “부산갈매기”, “아리랑랑랑”, “선녀와나무꾼”과 같은 닉네임은 노래 제목을 본 따서 지은 실례이다. 여기에서 닉네임 “오성홍기휘날리며”는 한국영화 “태극기는휘날리며”에서 유추된 것으로서 충분히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5 사랑과 관련된 닉네임

사람들은 닉네임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심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거나, 사랑의 상처를 받거나 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을 통하여 보면 사랑 관련 닉네임이 숫자적으로 엄청난 우세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인간의 영원한 주제인 것과 관련된다. 사랑 관련 닉네임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행복하게지낼자기와”, “너무아픈사랑”, “사랑하기때문에”, “내사랑유자”, “사랑을당신께”, “내사랑love”, “부부믿음장미꽃사랑”, “진정한사랑찾아요”, “고독男心”, “내생의마지막연인”, “이쁜이사랑해”, “사랑하고파요@68”, “사랑해도행복해”, “사랑은바람 타고오네”, “사랑은어려워” 등.

3.6 선정적인 표현과 관련된 닉네임

인터넷은 필경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자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다.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고 자신의 심경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음폐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인터넷에는 욕설, 비속어, 은어가 차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닉네임을 보면 선정적인 표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당신을위한밤”, “함놀아볼까”, “애인찾을가”, “변강쇠쇠때총각”, “벗으니황홀해”, “흔드는장미”, “★혼자가싫어★”, “적적한마음”, “까불면꼬신다”, “같이갈까요”, “고독한싱글”, “아줌마꼬시는시대”, “화끈한밤123”과 같은 닉네임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3.7 기라의 닉네임

국제화 교류가 빈번해 짐에 따라 숫자, 부호, 로마자 등 비음절문자가 네티즌들이 선호하는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닉네임의 수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뜻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닉네임들이 많다. 이런 닉네임에는 “IZC7000”, “phg731230”, “ljz9876”, “807758”, “Skawk”, “Jf1011”, “518@”, “Dua7774”, “Alghk411”, “Qaz”, “Boy27”, “Haidao-2008”, “Jek0529”, “81XO”, “905162”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인생 관련 닉네임, 성별 관련 닉네임, 성구, 속담 관련 닉네임들이 있는데 양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 약하기로 한다.

4 닉네임의 수사적 특징

기발하고 개성이 넘치는 닉네임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풍부한 연상과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닉네임은 흔히 수사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닉네임의 수사적 특징으로는 은유, 상징, 역설표현 등을 들 수 있다.

4.1 은유는 어떤 사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사물을 기술하는 비유의 일종이다.

은유는 풍부한 상상력을 요하기 때문에 표현이 기발하고 형상적이다. 우리 언어의 경우 습관상 곰이나 호랑이는 남자를 가리키고 여우나 꽃은 여자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다른 사물을 기술하는 방법이 바로 은유의 수사학적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 닉네임을 보면 “맘착한곰아저씨”, “못생긴곰”, “꽃뱀잡은호랑이”, “내용답사기쳐간 곰” 등이 있다. “맘착한곰아저씨”는 30대 남자의 닉네임인데 이 닉네임은 합성어로서 “마음씨 착하다”, “남자”, 그리고 “아저씨”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은유의 수사법으로 마음씨 착한 30대 남자의 신분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자 닉네임의 경우에는 “하늘소녀”, “금돼지”, “♥예쁜여우♥”, “숲속의여우”, “노란장미520”, “구미호” 등이 있다. 구미호는 대개 여성으로 묘사되며, 인간으로 둔갑할 때도 여성인 경우가 많다. 중국의 구미호는 표독하고 간사한 여성상을 상징하지만 한국의 구미호는 해를 끼치는 요물은 아니고 대개는 사랑을 나누고 싶은 형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은유의 수법으로 여자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4.2 역설적 표현이란 단어와 단어 지간 의미-문법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고 문법적 규칙이나 논리에 어긋나게 결합된 언어표현을 말한다.

닉네임은 특성상 규범이 되지 못하고 강한 수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가끔적이면 규범에 어긋나고 논리적 관계를 벗어난 언어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고 한다. 이러한 닉네임에는 “술과는취”, “바람쓴취”, “술취한취”, “내용답사기쳐간곰”, “위대한뻘새”, “뻘치린먹는을

챙이”, “천사의탈을쓴토끼님” 등을 들 수 있다. “술파는쥐, 바람쓴쥐, 술취한쥐” 등 닉네임은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쥐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쥐가 술을 판다, 쥐가 바람을 피웠다, 쥐가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은 엽기적이고 해학적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내용답사기쳐간곰”도 역시 곰을 의인화하였다는 점도 새롭지만 응답은 곰 신체구조의 일부분으로서 “곰이 응답을 사기쳐갔다”라는 표현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위대한밴새”나 “뽕치린먹는올챙이”도 역시 그 표현이 역설적이다. “천사의탈을쓴토끼님”은 “양가죽을 쓴 승냥이”라는 이야기에서 유추된 표현으로서 우리 민족에서 토끼는 항상 재치 있고 희망이 있으며 착한 마음의 상징이다. 그런데 “천사의탈을쓴토끼님”이라고 표현하면 결합되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모순되면서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5. 맺는말

언어는 사회문화의 담체로서 언어를 통하여 그 민족 사람들의 사유방식과 문화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닉네임은 언어의 일부분으로서 특정된 사회현상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의 변화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닉네임의 언어형식과 표현내용은 더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울 것이다. 닉네임의 산생은 전통적인 언어표현 방식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닉네임의 음절글자를 뛰어넘어 숫자, 로마자, 부호를 아우르는 조합방식이나, 단어의 한계를 넘어선 단어결합, 문장형식으로 된 구성방식은 한국어의 전통적인 조어법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수많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닉네임의 내용적 특징이나 다양한 수사법의 사용은 기발하고 생동하며 엽기적인 인터넷 용어를 대표하는 언어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 어휘체계를 더 한층 풍부히 하고 있다.

닉네임에 대한 연구는 언어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요해에 이로우며 나아가 부동한 문화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이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朱蓓蓓, 杨阳, 张佳慧, 社会语言学视角的网名探析, 赤峰学院学报2009年第8期
吕明臣, 李伟大, 曹佳, 刘海洋, 网络语言研究, 吉林大学出版社, 2008年
高秀娟, 网名的语言学分析与规范化问题, 《商业文化(学术版)》, 2008年2月
张莉, 网名的语言调查与文化分析, 河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4第3期, 2004年
이선희, 컴퓨터 대화방 언어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년

보고서:

이정복, 바람직한 통신언어를 위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2000년

【中文摘要】

随着社会的发展和时代的变迁互联网逐渐成为人们日常生活中不可或缺的存在。互联网如同人们呼吸的新鲜空气一样影响着现代人的整个生活，没有互联网的现代生活是无法想象的。很多网民们都借用互联网等假想空间进行信息交换。

网民们自由自在地享受互联网所带来的便利在网上进行聊天。众所周知，如想网上聊天，就要先进行网上注册。网上注册的名字叫网名。网名有使用者如实地反映本人的名字，但大部分网名具有随意性。

如果说人名反映父母或是长辈的价值取向，那么网名是体现网民个人的文化修养。因为大部分人名不是本人来取名，所以往往反映长辈的人生观、价值观等思想理念。但网名是根据网民个人当时的心理感受来命名，所以网名根据时间和生活环境的变化具有随意性。因此，网名反映使用者的心理变化的同时体现复杂的人格特点。

本论文将根据网名的结构特点、内容特点、文体特点来考察网名的语言特点。

关键词：互联网、中国朝鲜族、网名、语言特点

